

청년층 무이력 기간 장기화 현상 연구(1) 한국 편

-한국의 사회문화적 인식을 중심으로-

정근하*

(e-mail: wrg3141@naver.com)

目次

1. 들어가는 글
 2. 연구배경 및 조사방법, 대상
 3. 선행연구
 4. 한국 청년층 무이력 기간 장기화 현상 분석
 5. 결론
-

1. 들어가는 글

한일양국은 저 출산율 문제를 비롯한 청년층 실업문제, 초 고령사회 도래라는 풀기 힘든 난제에 봉착해 있다. 특히 청년층 무이력 기간¹⁾의 장기화는 청년들의 결혼시기를 늦추게 하거나, 심지어 결혼을 포기하게 하는 등,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파괴하고 있어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머지않은 장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사료된다.

청년실업 장기화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불황이라는 이유로 한일양국의 기업들은 정규직 채용

*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사회학 박사

1) 본고에서 말하는 무이력 기간이란, 취업 시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공식적인 경력기간이 없음을 의미하며, 한국의 경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공식기관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간을 말한다.

규모를 줄이고 비정규직 채용을 확대하고 있어 청년층의 무이력 기간과 저출산을 문제는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층 무이력 기간의 장기화 요인에 양국기업들의 채용구조 변화²⁾가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일본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인식들과 문화적인 요인 때문에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 사람이³⁾ 나타나게 되었고, 한국의 경우는 청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수년간을 공무원시험에 투자하며 스스로 무이력 기간을 연장해 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⁴⁾.

양국은 청년들의 무이력 기간 장기화 현상에 대해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인식하거나, 경제상황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⁵⁾, 본 연구자는 청년층 무이력 기간 장기화를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한일양국의 역사적, 사회문화적 요인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먼저, 한국 청년들의 경우,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학생의 신분'을 연장하

- 2) 須田敏子(2005: 73): 1993년 후생노동성이 고용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종업원 5천명이 상의 기업에서 「중신고용을 유지 하겠다」는 대답이 51%였다. 그리고 2001년에 조사한 결과, 중신고용을 유지하겠다는 기업은 14.6%로 급감하였으며, 여기서부터 많은 대기업들이 고용시책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다.(필자번역)

한국의 임용근로자 중 임시, 일용근로자 비율(%)

		2008	2008	2009	2009	2010	2010	2011	2011	2012	2012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근로자 수비율	임금근로자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정규직	64.8	66.2	66.6	65.1	66.9	66.6	66.2	65.8	66.7	66.7
	비정규직	35.3	33.8	33.4	34.9	33.1	33.3	33.8	34.2	33.3	33.3
	-한시근로자	20.3	20.4	19.8	21.3	19.3	19.2	19.7	19.7	19.5	19.2
	*기간제	14.3	14.7	15.9	17.1	14.4	14.6	14.4	15.2	14.7	15.3
	-시간제근로	8.1	7.6	8.2	8.7	9.2	9.5	9.0	9.7	9.8	10.3
	-비전형근로	14.6	13.3	13.5	13.9	13.1	13.4	13.5	13.9	13.0	12.9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477)

- 3) 후리타 타입에 대한 분류는 일본노동연구 기구의 후생노동성이 2003년 9월에 발표한 「若者の未来のキャリアを育むために～若年者キャリア支援政策の展開～」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후리타의 종류로는 「モラトリアム型(모라토리엄 타입)」, 「やむを得ず型(어쩔 수 없이 후러터가 된 타입)」, 「夢追求型(꿈을 추구하는 타입)」이 있으며, 특히 「やむを得ず型과 夢追求型」은 자신의 학력과 차이가 있는 곳에서 고생을 하느니 이상적인 직업을 발견할 때까지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 자체가 헛수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귀찮으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든지, 책임지지 않는 일, 자유롭고, 편한 일을 하기 위해 후리타를 선택했다고 했다.

小杉礼子(2003), 『フリーターという生き方』, 勁草書房, 47쪽.

山田昌弘(2004), 『希望格差社会』, 筑摩書房, 215쪽.

- 4) 2010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9급 공채 응시자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공직에 지원하는 대상 중 20대가 70%에 달한다고 하였다. 2010년 9급 공채 응시자 연령별 현황: 20세미만 0.4%; 20대 69.5%; 30대 28.4%; 40대 1.6%; 50세 이상 0.1%.
- 5) 나성숙(2005), 「한국 청년실업의 실태와 대응방안」, 서울시립대 석사논문, 1쪽.

여 무이력 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나 이를 묵인해 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 즉 한국 사람들은 "취업 준비생"이라는 학생의 신분(자격증, 공무원시험)에 대해 매우 관대하며, 특히 공무원시험 준비생(공시생)⁶⁾들의 가족들은 시험에 합격하기까지 몇 년 정도는 당연히 거쳐야할 기간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기간 동안은 경제적·심리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해줌으로써 청년들의 무이력 기간은 연장되고 있고, 일본의 경우, "25살까지 정사원이 되지 못했다면 정사원이 되는 꿈은 버려야 한다"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국 청년들의 무이력 기간 장기화의 배면에 사회문화적인 인식이 작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관점의 연구가 미흡하였다.

본고는 한일양국의 청년층 무이력 기간 장기화를 묵인해 주는 양국 특유의 역사적, 사회문화적 요인을 분석하여 양국사회의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데 본고의 의의가 있으며, 먼저 한국의 경우를 소개하고자 한다.

2. 연구배경 및 조사방법, 대상

본 연구는 연구자가 일본 유학시절, 같은 아르바이트 가게에서 일 하던 20대 후반의 일본인 후배들의 체념 담에서 시작되었다. 후배들은 겨우 20대 후반의 약관으로, 대학교 졸업자를 비롯한, 중퇴자, 고등학교 졸업자, 중퇴자 등 여러 학력의 소지자들 이었지만, 이들에게서 "일본에서는 25살까지 정사원이 되지 못하면 낙오자이며, 25살까지 정사원이 되지 못했다면 정사원이 되는 꿈은 버려야 한다. 이것이 일본의 룰이다"라는 공통된 발언을 들을 수 있었다. 이 충격적인 발언은 쉽게 잊어지지 않았고, 이러한 인식이 과연 사실인지, 그리고 한국의 사정은 어떠한지 비교하는 과정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본고에서는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 한국 청년들은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생"이라는 "학생의 신분"을 연장하여 부모로부터 생활 전반의 지원을 받으며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본고에서 다루게 될 "공시생"들은 2009년 연령제한이 없어지면서 5년 이상을 이 시험에 매달려, 사회경험을 쌓지 못하고 이제는 일반기업에도 응시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 어쩔 수 없이 공시생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

6) 요즘 학원가에서는 공무원시험을 줄여서 "공시",라 하고, 공무원시험 준비생을 "공시생"이라 부르고 있다.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이후부터는 공무원시험을 '공시', 공무원시험 준비생을 '공시생'으로 표기하도록 하겠다.

람들이다. 이들이 오랜 기간 학생의 신분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그들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시각으로 봐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본고에서는 한국사회가 왜 공부하는 사람, 즉 시험 준비를 하는 이들에게 관대한지 그 이유를 조명하고자 한다.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관대한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먼저 문헌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 내용을 토대로 심층면접에 필요한 설문을 만들었다. 심층조사 대상자로는 본 연구자의 생활반경에 있는 지인들 중, 5년 이상 공시에 매달려 있는 4명을 조사하였고, 4명의 샘플로는 논증을 일반화 할 수 없어, 광주지역 15곳의 독서실에 찾아가 3년 이상 공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인터뷰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다년간의 실패 경험자들은 인터뷰에 응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인터뷰 요청 도중 소개받은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확보했다. 인터넷 카페 이름은 "9꿈사-공무원을 꿈꾸는 사람들7)"로, 이 카페는 2013년 10월 현재 62만 명 이상의 회원들이 가입하여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수카페였다. 이곳에서 "장수생"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수년간 공시에 매달려 있는 10명의 사례를 확보하였고, 이들의 무이력 기간 장기화 요인을 분석하였다(단, 게시 글들은 수정 없이 그대로 올렸다).

<표 1> 한국인 조사 대상자 속성표

	이름(성별)	나이	학력	임용고시 및 공무원 시험기간 합계
1	임○○ (남자)	30살	광주 국립대 사학과 졸업	6년
2	박○○ (남자)	31살	광주 사립대 경영학과 졸업	5년
3	권○○ (남자)	32살	광주 국립대 교육학과 졸업	6년
4	서○○ (여자)	28살	전남 국립대 철학과 졸업	6년

본고는 선행연구를 통해 한국의 청년층 무이력 기간의 장기화를 목인하는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본문에서는 조사대상자들과 카페의 사례들을 통해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 인식들이 무이력 기간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하겠다.

3. 선행연구

3. 한국의 지식 관, 교육열에 대한 역사적 요인분석

3-1. 조선시대의 지식 관

조혜인(1998)은 현재의 한국교육의 문제점을 유교 성리학의 유산으로 간주하고 조선시대의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선비들의 지식 관에 대해 특권 주의적

7) <http://cafe.daum.net/9glade>, 다음카페, 9꿈사-공무원을 꿈꾸는 사람들

신분의 "보상과 의무의 문제"로 관련시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유교에서 지식을 인격의 불가분의 일부로 보고 "배운 사람"을 존경하려는 지향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 과거제도가 발전하여 독서계층이 전반적인 엘리트계층으로 자리 잡아 가면서 신분 주의적 지식 관으로 구현되었다. 유교적 지식을 습득한 선비를 과거고시로 추려내어 그 일부는 국가의 관리로, 그리고 나머지는 "향촌" 사회의 지도자로 삼는 보편적 엘리트 구조가 확립된 것은 중국에서는 송대(960-1279)에서였고(양종국, 1996) 우리는 조선시대(1392-1910)에서였으므로 (한영우, 1983) 신분 주의적 지식관도 대체로 그 무렵에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송대에 비해 삼사백년의 시차를 가지고 그러한 체계가 자리 잡았지만 그 강도는 중국을 능가하는 것이었다(Cho, 1998), 지식을 인격과 결부시키는 세계관이 신분 주의적 지식 관으로 구현되는 것은 이렇듯 사회 속에 그에 상응하는 계층체계가 자리 잡을 때이다. (p133)

현재의 특권 주의적 지식관이 유교의 인격적 지식 관에서 발달한 신분 주의적 지식관이 변질된 것이라는 말은 기저에서 그러한 인격적 지식 관에 뿌리를 박고 기생하고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많이 알수록 그만큼 더 훌륭한 인격이라는 생각에 뿌리를 박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뿌리에서 불거져 나와, 많이 아는 사람은 그만큼 "훌륭한"사람이고 "훌륭한"사람은 "당연히"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까지 여겨버리는 것이다(조혜인 1995a). 여기서 "당연히"가 없다면 신분 지향적 지식관 자체의 표현이 된다⁸⁾. (pp142-143)

조혜인은 조선시대의 지식 관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은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은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지위와 특권, 그리고 보수를 받아야 했다는 시대상을 폭로하고 있다. 조혜인과 함께, 강창동(1996)은 한국 교육열의 사회화 특성연구에서 한국의 "효 사상"을 예로 들며, 왜 조선 사람들이 과거시험에 전 인생을 걸었고, 송문주의 전통이 한국사회에 어떻게 이어져 오고 있는지 시대별로 분석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송문주의 전통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있어 왔지만, 사회적으로 일반화되어 보편적인 가치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부터 이다. 물론 고려시대에도 문인과 무인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왔지만, 사회생활 깊숙이 침투하지 못 하였다. 그것은 유학을 일상생활의 규범으로 정착하기엔 불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컸었기 때문이다. 고려말 신진사대부들은 정권 창출을 위해 신유학을 도구적 이데올로기로 삼았다. 이들은 조선 초의 정권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충과 효의 강한 계서적 원리를 강조하였다. -----중략-----

입신양명주의는 유교적 효와 관련이 있다. 교육을 통해 입신을 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효의 끝이다. 이념적인 면에서 효와 입신양명은 사회적

8) 조혜인(1998), 「한국교육 현상 속의 왜곡된 성리학적 유산: 보상과 의무의 문제와 관련 하여」, 한국과학연구 제7집, 133쪽.

이해관계와 관련 된 도구적 특성을 지닌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입신양명은 과거제를 통해 관직에 오르는 것을 중요시 하게 되었다. 소년등과 라든가 과거제의 합격에 의한 입신양명을 효의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다. 따라서 입신양명주의는 효와 가문의 명예를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여기서 교육을 통해 입신양명을 한다는 것은 관료적 지위에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관료적 지위에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시대의 미분화된 사회구조로 인해 관료적 지위는 지위, 권력, 부가 집중되어 있다. 사회적 혜택이 관료들에게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료적 지위에 오르려고 하는 욕구는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입신양명주위에 내포된 교육의 의미는 지위적 이해관계와 관련 된 도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략-----

관리가 된다는 것은 가문의 명예를 높일 수 있으며, 그 사회적 혜택은 당사자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가문전체에 그 영향력이 파급된다. 따라서 관리적 지위획득을 위한 교육의 의미는 가문의 사회적 지위를 고양하는 도구적 수단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집단적 성격과 관련이 많다. 실제 문중에서 재능이 있는 자가 있으면 가문 중심의 집단적인 교육투자를 서슴지 않았다. 미약한 가문출신이라도 과거에 합격하면 가문전체가 일시에 사회적 명예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의미는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런 이유로 교육에 대한 투자는 사회유산적인 성격이 강하였으며, 이 점은 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사회적 동기로 작용하였다⁹⁾.

강창동은 유교의 효에 대하여 언급하며, 과거급제를 통해 입신(立身)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효의 끝이라 지적하였고, 과거급제를 위해 조선사회에서는 문중에서 재능이 있는 자가 있으면 가문 중심의 집단적인 교육투자를 서슴치 않았음은 물론, 미약한 가문출신이라도 과거에 합격하면 가문전체가 일시에 사회적 명예와 보상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과거시험에 전 인생을 투자할 수 있었다고 조선시대의 시대상을 폭로하였다.

강창동(2008)은 조선시대의 이와 같은 교육열의 배후에 사회적 신분 상승과 유지를 열망하는 조선인들의 욕망이 숨어 있음을 4가지의 교육열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조선시대의 교육열은 첫째 지위지향적인 교육열이었고, 둘째 가족주의적 교육열, 셋째 상징 주의적 교육열, 넷째 결과 주의적 교육열이었다며 조선시대의 교육열을 현대의 시각으로 재조명하였다. 즉 조선시대의 유교교육은 사회적으로 인(仁)을 실현하여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인격도야(人格陶冶)에 있었으나, 유교와 과거제가 연계되면서, 유교교육은 신분상승과 유지를 위한 시험으로 그 본질적 의미가 변질되었다. 특히 유교의 대표적 사상 중 하나

9) 강창동(1996), 「한국 교육열의 사회화 특성에 관한 연구」, 교육문제연구 8권 1호, 209-227쪽.

인 입신양명(立身揚名)은 수신(修身)을 통해 인의 도를 깨달아 사람들에게 사심 없는 자애로 사랑을 베풀어, 자연스럽게 널리 사회에 이름이 알려지게 하는 것이었으나, 입신양명이라는 자녀의 도리가 과거제와 결부되면서 출세를 위한 가장 공정하고 확실하게 출세할 수 있는 상징적인 도구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유교학문은 수신에 의한 내면적인 인격의 성숙을 강조하였으나, 과거제는 불행하게도 관료사회의 정치사회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세속적인 도구로 변질되었고, 유교학문만이 관료로 출세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과거시험은 신분상승과 효를 실천하는 지름길로 인식되었던 것이다(국사편찬위원회, 1994: 8)¹⁰⁾.

3-2. 일제강점기, 근대이후 한국의 교육열

조선시대의 과거시험 집착현상은 과거에 급제만 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 확실하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식을 통해 합법적으로 신분상승을 하려는 문화적 전통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조선말 신분제의 개혁으로 적어도 외형적으로 계급적 평등을 지향하게 되었다. 학교도 한학 중심을 벗어나 근대학제의 모습을 점차적으로 갖추기 시작하였다. 제도화된 교육체제는 직업적 지위와 직접적으로 연결 됐으며, 신교육 내용이 직업자격시험의 기준이 되었다. 일제시대에 들어서 이러한 체제는 더욱 체계화 됐다. 일제시대는 식민지 교육정책에 의해 학교 설립이 제한되었으며,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들만이 제도화된 지위구조에 편입할 수 있었다. 직업구조의 위계서열에 따라 시험의 수준이 달랐으며, 요구하는 학력수준도 달랐다. 이것은 교육적 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사회적 유인체로 작용하였다. 특히 신분해방을 통해 외형적으로 교육기회를 개방하였으나 제한된 학교교육으로 인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결국 교육을 통한 지위 획득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유로 교육적 열망은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유일한 고등교육기관인 경성제국대학 출신들의 지위 점유 수준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경성제국대학 예과 졸업생들은 대학교수가 42.5%, 각료가 약 7%, 고급 공무원이 1.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충우, 1980: 266-297)¹¹⁾. 이렇듯 경성제국 출신자들은 교육 위계구조의 최고 상층부에 있는 거와 같이 직업의 위계적 위치에 있어서도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다. 교육구조와 직업적 위계구조와 서로 대응하고 교육을 통한 사회적 보상이 이루어짐으로써 전통적 교육적 믿음을 자극할 수 있었다.

이점은 해방이후 교육팽창을 요구하는 교육적 열망으로 작용하였다. 강만길은 해방이후 교육이 팽창된 이유로, 첫째, 식민지 시대의 일종의 우민정책에 의한 교육억제정책이 풀리면서 억눌렸던 교육열이 폭발한 점, 둘째, 해방 후의 학령인구증가와 교육열에

10) 국사편찬위원회(1994), 한국사 23: 조선초기의 정치구조, 탐구당문화사

11) 이충우(1980), 『경성제국대학』, 다락원

맞춘 문교정책의 교육문화 개방주의, 셋째, 식민지 시대의 지배계급 중심 및 자산계급 중심의 폐쇄적인 대학관이 개방되어 대중화 되어간 점 등을 들고 있다(강만길, 1989: 277)¹²⁾. 이처럼 식민지 시대의 억제적인 교육정책은 오히려 교육에 대한 일반적 믿음을 가중시켰으며, 그것은 교육확대에 대한 일반민의 요구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학력을 획득한다고 해서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50년대 전후는 피폐한 경제사정으로 인해 직업적 인력을 수용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강창동, 1996).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피폐해질 만큼 피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의 열의만큼은 식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교육에 대한 낙관적 믿음 때문이었다. 즉 교육은 해방이후 한국에서의 신분상승과 계층이동을 가능케 하는 가장 확실하고 주요한 기제였다. 일본의 식민통치를 통해 조선왕조가 유지해 오던 전통적 계급구조가 와해되었고, 학교교육만이 유일한 신분상승의 통로가 된 것이다.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을 직접 경험을 하게 된 한국 사람들은 교육에 대한 믿음이 더욱 공고하여졌다. 게다가 교육을 통해 얻어진 사회적 연대망과, 이 연대망을 통해 가시적으로 얻어지는 후광효과는 교육의 가치를 더욱 높여 놓았다. 이와 같은 교육의 실질적, 상징적 가치를 목격한 한국 사람들은 교육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가중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서구 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능력에 따른 성취라는 자본주의 경제 원리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가장 저항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신분 상승의 기제였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은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 바람직한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간주 되었다.

해방이후 정규교육을 받은 수혜계층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1960~1970년대, 한국은 경제성장기와 맞물려 그들이 새로운 중산계층이 되었다. 이들은 교육을 통해 신분을 이동시켰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유독 교육을 통해 신분이동을 하는 사회가 되었을까? 이에 대해 정우탁(1997: 160-161)¹³⁾은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3가지로 나누어 설명 하였다.

첫째, 당시 한국사회가 일제 식민지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전통적 신분제는 무너지고 이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사회계층을 확립하지 못한 진공의 사회였다는 점이며, 당시 상층 계급의 부재 혹은 소수화로 인해 새로운 상층 및 중산층 계급으로의 신분이동 통로가 활짝 열려져 있었으며 따라서 교육 사다리를 잘 타고 올라가면 신분 상승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중등교육의 팽창과 고등교육의 팽창은 이러한 교육 수요의 증대와

12) 강만길(1984),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13) 정우탁(1997), "교육과 사회적 이동의 정치적 의미", 교육정치학연구 제4집 제1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둘째, 유교문화의 승문적 분위기의 영향으로 교육은 한국사회에서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사농공상'의 신분의식이 깊이 뿌리 박혀 학자, 배운 사람, 교육받은 사람은 일반인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았다. 이 때문에 한국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면 더 많은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였다.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교육받은 근로자의 한계 생산성을 비용과 대비한 <교육투자 수익률>이라는 합리적 지표가 한국에서는 전혀 적용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절대적 교육열 때문이다.

셋째, 상층문화 규범이 부재한 상황에서 유일한 계층 구분의 잣대로 자연스럽게 교육이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을 들 수 있다. 부르디외는 문화자본의 축적이 계급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점을 실증적인 사회조사를 통해 보여주며 동시에 이들 문화자본이 교육정도 즉 교육자본과 정적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해방이후 한국의 경우 이러한 문화자본이 전혀 축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은 더욱 중요한 신분구별의 지표가 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건이 허락하면 더 나은 교육, 더 많은 교육을 받기를 필사적으로 원하게 되었다.

해방 이후, 교육을 통해 노력하면 당대에 신분상승과 부를 획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치열한 입시경쟁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입시경쟁은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가족의 장래를 좌우하는 막중한 의미를 지닌 가족의 중대사, 가족의 '연합적 행사'였다. 좋은 학교를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조선시대 과거급제와 같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조혜정(1995: 87-88)¹⁴⁾은 한국에서의 대학입시 준비를 어머니의 무한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 자식의 효를 자연스럽게 끌어내는 기제로서 이를 바라보고 있다. 고 3생은 이 기간을 지나면서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마음 깊이 느끼게 되고 나중에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등, 신세대의 보수성이 이러한 입시전쟁 중에 주어졌던 물질양면의 지원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강창동(1996)은 한국사회의 교육열을 특히 심화시킨 근본적인 원인을 지위지향적, 집단주의적 교육양식에 있음을 지적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물론, 그들의 가족까지 끌어들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지위지향적 행위양식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도구적 가치를 지닌 것이다. 유교에서 파생된 입신양명주의와 큰 차이가 없다.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통과하여 관리가 되면 일시에 사회적 보상이 주어지는 문화적 전통에 의해 현대사회에서도 이러한 가치가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집단주의적 행위양식은 주로 가족 중심으로 일어나지만, 학생 당사자와 관련된 집단과도 관련을 맺고 있다. 예컨대 수험생의 어머니 기상시간을 살펴보면 5시 이전이 34.9%이며, 5시에서 6시 사이가 59.5%이며, 6시 이후는

14) 조혜정(1995),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 읽기와 삶 읽기③』,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5.6%에 지나지 않는다(이동원 외, 1992: 36)¹⁵⁾. 어떤 학부모는 교육과 가족주의적 측면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김영화, 1993: 100)¹⁶⁾.

교육받은 당사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나 의지 때문에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사자 자신보다 그가 속해 있는 혈연집단에서 그것을 더욱 원한다. 당사자는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 집단의 고난 극복을 위임받은 대행자와 같은 입장이다. 이처럼 교육에 대한 가족 중심의 집단적 열망은 강하며, 교육 당사자에게만 그 책임감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점은 비진학자의 재수생의 결심 이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당사자의 강한 열망보다도 부모님이나 나 자신이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73.8%로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강무섭, 1986: 72)¹⁷⁾. 또한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한 주거 이동의사에 대해서도 무리를 해서라도 이사를 원하는 경우가 3.2%이며, 여건만 허락하면 이사를 한다가 55.4%로 교육에 대한 집단적 집착 정도를 알 수 있다(김영화, 1994: 146)¹⁸⁾. 어느 부모는 실제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다(고복순 외, 1987: 19)¹⁹⁾. 나는 남편과 집 장사로 벌은 돈으로 조그만 상가를 지었다.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살림은 그럭저럭 꾸릴 수 있었으나, 넉넉하지는 않았다. 명색이 두 아이를 도시로 유학을 보내고 나니 뒷감당이 힘들었다. 그래도 나는 감사했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경제적 희생을 감당하면서도 공부를 시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교육에 대한 집착성이 강하다. 한국의 교육이 이렇게 가족 중심의 집단적 성격이 강한 이유는 언급한 바와 같이, "입신양명 사상"과 "효 사상"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사료된다. 즉 한국에서 교육이란 개인 당사자에게만 국한된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공유하는 문화적인 함의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집단적 교육행위가 가능했던 것이다.

우리 선조들이 지위, 권력, 부를 확실하게 보장 받기위해 전 인생을 걸면서까지 과거시험에 매달렸던 것처럼, 지금의 한국청년들 또한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재수 삼수를 마다하고 있고, 대학교 졸업 후에는 확실한 직업적 신분을 획득하기 위해 공시에 도전하여 대학입시 이상의 경쟁을 돌파하기 위해 학생의 신분으로 또다시 학원이나 독서실로 향하고 있으나 그 길은 쉽지 않았으며, 그 시험에 수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재훈(2009: 38)²⁰⁾의 연구에 의하면 조선시대의 과거급제 평균 나이가 37세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15) 이동원 외(1992), 「대학입시와 가족」, 한국사회학회, 가족 문화연구회

16) 김영화 외(1993), 『한국인의 교육열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7) 강무섭 외(1986), 『입시위주 교육의 실상과 대책(1)』, 한국교육개발원

18) 김영화 외(1994), 『한국인의 교육의식 조사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 고복순 외(1987), 『어머니의 내신성적』, 삼중당

20) 김재훈(2009), "순조대 문과의 운영과 응시자들의 동향", 명지대학교 석사논문

<표2> 순조대 급제자의 나이분포²¹⁾

나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합계	평균
명수	24	242	405	256	80	35	7	1049	36.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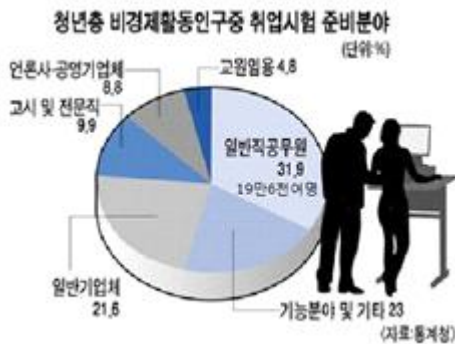
안정되고, 확실한 사회적 신분을 획득하려는 관점으로 양 시험에 응시하는 우리선조들과 지금의 공시생들의 2·30대의 삶을 비교하면 그 생활패턴과 가족들의 기대는 다르다 할 수 없으며, 무이력 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이와 같이 한국사회는 시험을 통해 인생의 대역전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의 청년층 또한 스스로 괴롭고 긴 수험생활을 자초(自招)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사회 또한 그러한 대역전들을 목격해 왔기 때문에 지금의 무이력 기간 중인 청년들을 학생의 신분으로 관대하게 봐주는 것이다.

4. 한국의 청년층 무이력 기간 장기화 현상 분석

4-1 조선시대의 과거제와 지금의 공무원 시험의 비교

1) 응시규모가 비슷하다.



MBC 이코노미뉴스²²⁾는 통계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층의 취업준비 실태를 보고 하였다. 이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15~29세 청년은 955만 명으로 15세 이상 인구의 22.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청년층 61만4천명이 취업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시험 준비 분야 가운데 일반직 공시를 준비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9만6천여 명(31.9%)으로 가장 많은 수치였다고 보고했다. 전체 취업준비생 가운데 공시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5월에는 28.7%였으나 올해 5월에는 31.9%로 더 높아졌다고 한다.

공시 지원자 수가 20만 명에 육박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조선시대 과거시험에 응시한 선조들의 통계치가 지금에 공무원시험

21) 차장섭(1994), "조전후기 문과급제자의 성분", 대구사학 47, 31쪽

22) MBC 이코노미뉴스, 2013.7.18. "취업준비생 3명중 1명이 공무원시험"

응시자수와 비슷하다는 점이다. 정석중²³⁾(1992: 256)과 강명관²⁴⁾에 의하면 정조 24년 3월21일 경과의 정시(庭試) 초시(初試)에 응시한 사람은 11만1838명이었고, 받아들인 시험지는 3만8614장이었다. 이튿날인 3월22일 인일제에는 응시자가 10만3579명이었고, 받아들인 시권은 3만2884장이었다(정조실록). 이틀에 걸쳐 21만 명 이상의 응시생이 한양 성내에서 시험을 쳤던 것이다. 당시 한양의 성곽 안의 인구는 20만에서 30만 사이였는데, 서울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과거를 치렀다는 것이다.

과거시험 응시자 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당시 관료 채용인원이 극 소수였기 때문에 수차례 반복하여 응시하는 사람들이 누적되어 늘어나게 된 누적수치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의 공시생들 또한 수차례의 고배를 마시며 재도전을 하는 사람들의 누계라는 점에서 이 두 시험은 공통점이 있다.

2) 나이, 학력, 신분에 상관없이 오직 개인의 학습능력에 의해 선발되는 공정한 시험

<표3> 과거제도와 현대 공무원시험 비교표²⁶⁾

	과거제도	현대 공무원 공개 채용 시험
응시자격	* "경국대전"에서 정한 결격 사유 ²⁵⁾ 가 없는 양인	* 남/여 학력, 경력 제한 없음 * 응시상한 연령제한 삭제(2009) *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된 자는 임용취소

23) 정석중(1992), 『조선후기 사회변동연구』, 일조각

24)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print.php?mgz_part=shin&n=200305270500016, 동아닷컴, 강명관의 조선사회 뒷마당 9, 과거제도

25) 『경국대전(經國大典)』, 권3, 예전(禮典) 제과(諸科)

- 문과시험인 경우에는 통훈대부(通訓大夫) 이하의 관리에게도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며 무과시험도 마찬가지이다. 생원 및 진사 시험인 경우에는 통덕랑(通德郎) 이하의 관리에게도 응시하는 것을 허락한다. 고을원인 경우에는 생원 및 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 죄를 범한 탓으로 영원히 등용되지 못하는 자, 탐관오리[臟吏]의 아들, 두 번 시집갔거나 행실이 방정치 못한 여인의 아들과 손자, 첩 소생의 자손에게는 문과시험과 생원 및 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본도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조정관리에게는 지방의 예비시험[鄉試]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임금의 지시를 받아[承差] 휴가 중에 있는 사람은 이 규례에 적용시키지 않는다. 무과시험도 마찬가지이다.
- 시험장은 2~3개소로 갈라서 설치한다. 응시자[擧子]와 시험관이 혐의를 피해야[相避]할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가서 응시한다. 아버지가 원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엔 아들은 피해야 한다. 무과시험도 마찬가지이다.
- 음양과(陰陽科)와 천문학과의 경우에는 본 학과의 생도 이외에는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 문과는 10년에 한 번씩 두벌시험[重試]을 실시한다. 당하관들에게만 응시하는 것을 허락한다. 인원수와 시험방법은 그 시기에 임박해서 임금에게 제의하여 결재를 받는다[稟旨].

정현진(2009)에 의하면 조선시대 과거제도에는 법제상으로 천민(재인, 광대, 백정 등)이 아닌 이상, 그리고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누구나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명문화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신분에 따른 차별이 없지는 않다고 한다. 특히 문과의 예비시험에서 생원·진사시는 양반이 아니고서는 합격하기 어려웠다. 그렇다 치더라도, "경국대전"의 규정에 문과, 생원, 진사시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 대체로 범죄를 저질러 관직에 임용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사람, 부녀로서 행실이 좋지 못하거나 재가한 사람, 첩의 자손 등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을 뿐이었다. 당시의 신분사회 상황에서 비교적 차별이 없는 시험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금의 공시는 2009년 이전까지는 연령제한을 두었지만, 2009년부터 7·9급 공채시험부터 이를 폐지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등, 평등하고, 공정한 시험으로 진화를 거듭해 가고 있으며, 오직 개인의 성적에 의해 선발되고, 자신의 성적까지 확인할 수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상의 두 시험은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첫째, 모두에게 개방된 시험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둘째, 연령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무이력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잠재력이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즉 과거시험에 전 인생을 걸었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처럼 지금의 공시생들도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장기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 같다.

3) 합격만 하면 신분의 보장과 함께 모든 것이 정당화 된다는 믿음이 있는 시험

과거와 공무원시험은 합격만 하면 신분이 보장되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과거시험의 합격과 지금의 공무원시험 합격의 의미가 같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합격을 함으로서 신분적인 안정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는 것이다. 2013년 KBS에서 방영하고 있는 "한국의 유산"에 "조선후기 시인 백곡 김득신"을 소개했다. 그는 59세에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다. KBS는 그를 평생을 걸쳐 다독(多讀)한 진정한 학자라 소개한다. 특히 김득신의 묘비문을 소개하며, 실패를 거듭해도 끊임없이 공부하면 "이름을 얻을 수 있다"고 국민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그가 그 나이까지 공부만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합격만 하면 확실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과거에 대한 믿음이 배면에 있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공시생들 또한 수차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도전을 하는 이유는 합격을 통해 지금까지의 고생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이 점 또한 두 시험의 공통점이다.

이상의 예를 통해, 청년층의 무이력 기간 장기화 문제가 요즘 갑자기 생겨난 현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청년층 무이력 기간 장기화 현상은 수세기 전부터 있어 왔던 한국 특유의 사회문제였으며, 그 저변에는 승

문적 태도와 입신양명, 효를 강조하는 유교적인 행동패턴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인식은 앞으로도 조건²⁷⁾만 갖추어지면 침전된 부유물이 층격에 의해 다시 부유하듯, 우리사회에서 계속해서 반복 재연될 우리사회의 사회문화 인식이라 사료된다.

4-2 한국 청년들의 무이력 기간의 장기화 현상과 공시와의 관계

한국은 IMF사태 이후 모든 세대가 실업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취업과 재취업을 늘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²⁸⁾. IMF이후 우리사회는 대다수의 직업이 임시직화 되었고, 최저 임금생활자가 양산 되었으며, 자영업자들의 몰락 등, 전 국민이 고용불안을 느끼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²⁹⁾. 그리고 고용시장이 더욱 악화 되자 청년층의 일자리에 이제는 중·장년층이 끼어들어 일자리 경쟁을 하게 되었고, 이에 정부는 참신한 창의력이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우수한 공무원을 유치하려는 취지 아래, 2009년 공무원시험부터 응시상한 연령제한(9급-32세, 7급-35세)을 폐지하여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시험에 도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채용시험 중 가장 공정하고, 차별이 없는 시험으로 만들었다. 2010년도 국가직 공시 합격자의 응시나이를 살펴보면, 9급 최종합격자의 경우, 33세 이상의 수험생이 12,121명으로 전체 수험생의 15.5%를 차지하였고, 그 중 255명이 합격하였다. 2009년도의 11.1%와 비교하면 4.4%가 상승하였으며, 41세 이상의 수험생들 중에도 15명이 합격하였다³⁰⁾. 또한 7급 최종합격자의 경우, 총 453명 중 36세 이상이 75명으로 16.5%를 차지하였고, 2009년과 비교해 6.2%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41세 이상 합격자가 14명으로 2009년과 비교해 0.8%가 상승하였다³¹⁾.

허희영(2010)³²⁾의 조사는 공시생들이 ‘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가’에 대한 동기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공무원 지원자들은 “신분보장, 경제적 안정, 근무조건” 등과 같은 외재적 요인을 우선순위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재적 요

27) 일제강점기를 거쳐, 한국전쟁이 휴전에 들어가기까지 한국사회는 신분상승과 입신양명은 아주 제한적 있었으나 신분상승에 대한 열의가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이후 사회가 안정되고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자, 침전된 부유물이 진동에 의해 다시 부유하듯 신분상승과 입신양명이라는 한국 특유의 신분상승 의식이 다시 재연된 것이다.

김경근(2006), “한국사회에서의 상급학교 진학 선택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제16권 제4호, 2쪽

28) 오마이뉴스. 2003.8.28. “4-50대 실업, 남의 일이 아닙니다”

29) 경향신문. 2010.11.07. “올해 당신은 행복했나요”

30) 서울신문. 2010.9.29. “공무원시험 늦깎이 돌풍”

31) 서울신문. 2010.11.17. “7급 국가직 합격자 평균 30.5세”

32) 허희영(2010), “공무원 지원자들의 직업선택 동기에 관한 연구: 7, 9급 지원자들을 중심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논문, 86쪽.

인으로는 자기계발 기회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았고, 이들은 공직에 대한 관심 및 기여보다는 사기업에 비하여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공직을 선호한 것이므로 이기적인 성향의 발로라 보았다. 즉, 일단 합격만 하면 신분이 보장되고,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일반 사기업보다 좋은 근무 조건에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공무원의 가장 큰 매력이었다고 하였다³³⁾. 그리고 그 외, 한국행정연구원을 비롯한 황성원·함종석(2001), 황인수 외(2004), 장지원(2007)등의 조사도 공무원을 직업으로 선택한 동기들을 분석하여, 비슷한 보고를 내 놓았다.

본고는 공시생들이 수년간 고배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수험생들이 오랫동안 이 시험에 매달릴 수 있었던 근본적인 요인들을 밝히고자 한다. 다음은 심층 인터뷰 조사와, 다음카페 9꿈사(공무원을 꿈꾸는 사람들)의 글을 통해 분석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표 4> 수험생들이 공무원시험을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이유들

공무원시험 3수 이상 하는 이유	인터뷰 대상자	9꿈사 회원 ID 및 글
1.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의 적극적인 지원.	박군, 권군, 임군, 서양	http://cafe.daum.net/9glade/GvVP/117445 ID: 다시한번호연지기 http://cafe.daum.net/9glade/GvVP/117621 ID: 간절히원하면이루어질까 http://cafe.daum.net/9glade/GvVP/127900 ID: 난특별 http://cafe.daum.net/9glade/lq/28875 ID: 백조탈피
2. 합격만 하면 모든 상황이 바뀐다는 믿음, 합격하는 것이 효도라는 믿음.	박군, 임군, 서양	http://cafe.daum.net/9glade/9DIn/874802 ID: 정상민 http://cafe.daum.net/9glade/GvVP/42845 ID: 횡~잉 http://cafe.daum.net/9glade/9DIn/1702234 ID: 슈뢰딩거의 고양이 http://cafe.daum.net/9glade/9DIn/539913 ID: 꼭꼭
3. 지금까지 공부한 시간이 아깝고, 일반 기업에 취직할 경력도 없으며, 막노동은 못하겠어서.	박군, 권군, 임군,	http://cafe.daum.net/9glade/GvVP/122809 ID: 꼭꼭 http://cafe.daum.net/9glade/A6G/12151 ID: 이제취업인가 http://cafe.daum.net/9glade/A6G/11963 ID: 락발라드

먼저 한국의 청년들이 공시에 장기간 몰두할 수 있는 이유는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이었다. 물론, 장기간 합격하지 못하고

33) 태종실록에서는 문과를 통해 관리가 된 사람들은 대개가 배움을 생계의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일단 과거에 합격하면 곧 학업을 버린다고 하였다(이원호, 2009: 90). 인격적 소양을 도모해야 할 유교교육은 과거합격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과거제에서 유교사상은 수신의 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료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 과거 합격은 수신의 척도가 되며, 관료는 유교학문의 척도가 된다는 것이라 강창동(2008: 25)은 말하고 있다. 이 또한 과거제와 공무원 시험의 공통점이다.

공시에 매달려 있는 자녀에게 일반 기업에 취직할 것을 주문하는 부모님들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IMF이후 상시적인 정리해고의 위험성을 감안해야 하는 현실에서 수험생들은 물론, 부모들도 무조건 공무원이 돼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를 바라며 지원을 아끼고 있지 않는 부모들도 많다는 것이다.

박군 (31살, 남자, 대졸, 미혼, 9급 공시 5년차)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시고, 정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늘 저에게 공무원이 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가장 믿을 수 있는 국가 공무원이 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살아오신 어머니도 아버지에 말씀에 동의를 하고 계셨고, 합격할 때까지 다른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 자신도 4년간 고배를 마시는 바람에 부모님 얼굴보기도 부끄럽지만 지금까지 부모님께서 해주신 뒷바라지, 공부한 내용을 포기하고 현장에 가서 일하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합니다. 사실은 기업에 취직할 용기도 없습니다. 부모님도 저를 보시면서 한심해하시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합격해서 떳떳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권군 (32살, 남자, 대졸, 미혼, 임용고시/7/9급 공시 6년차)

5년차 공시를 준비하는 저는 부담감이 너무 커서 임용고시는 완전히 접어버렸고, 7급 교육 행정직 공무원 합격만을 생각하기 위해 애인과의 합격할 때까지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공부에 매진을 해도 부족할 판에 애인 생각이 자꾸 납니다,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아닌지 이상한 생각을 하는 등,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국립 대학교에 차석입학을 하고, 학창시절 시험에 두려움이 없었던 제가 왜 이런 시험에 합격을 못하는지 기가 막힐 일이었습니다. 가족의 따가운 시선과 동반한 기대감 때문에 참 괴롭습니다. 사회경험이 전무하여 이력서도 쓸 수 없는 현실은 저를 공시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제 7/9급 공무원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합격만 하면 모든 상황이 변할 것이고, 차석까지 한 아들이 힘들일 하는 것은 못 보시겠다며 오늘도 점심값을 주셨습니다.

임군 (30살, 남자, 대졸, 미혼, 임용고시/7/9급 공시 6년)

어려서부터 역사가 좋아 국사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3번의 임용고시 실패에는 제 공부 방식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삼국시대에 관심이 많아 대학교 때부터 다른 시대보다는 삼국시대 공부에만 매달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사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알아야 하는데, 석/박사님들이 해야 할 연구를 학사주제에 게다가 수험생 주제에 제 고집대로 그 부분만 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공부를 통해 새로운 발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전략도, 시험패턴 고려도 없이 3번이나 임용고시에 도전했다는 것이 어리석었습니다. ...중략... 9급 공시 정도는 단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노랑진으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아무런 수입도 없이 부모님께 매달 80만원 이상을 받아쓰고 있는 제 자신도 싫고, 아무 일이라도 해볼까 생각도 했지만, 이력서를조차 초라한 제 신세가 비극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못난 자식을 그래도 자식이라고 믿

어주시고, 밀어주시는 부모님을 위해서 올해는 꼭 합격하고 싶습니다.

서양 (28살, 여자, 대졸, 미혼, 9급 공시 6년차)

저는 특기도, 취미도 없이 그냥 평범하게 학교생활을 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이 돼서야 취업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력서를 50곳 넘게 냈지만 면접은 4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한번 있었고, 채용되지도 않았습니니다. 23살까지 처음 맞보는 좌절이었습니다. 선배들 대부분이 공시를 준비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절대 공무원은 안한다고 생각했는데, 졸업이 가까워지고 이력서를 내도 소식이 없자 선배들이 그랬듯이 저도 공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년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생각처럼 점수가 나오지 않았고, 영어를 비롯한 행정학, 헌법, 한국사 등 도대체가 외워지지 않는 과목들뿐 이었습니다. ...중략...

4번째 도전에도 또 떨어지자 가족들의 실망도 컸고, 아버지는 합격할 때까지 공부하라고 하셨습니다. 시답잖은 중소기업에서 일하지 말고, 공무원신분으로 좋은 신부자격을 갖추라는 했습니다. 합격만 하면 지금까지의 고생들을 한꺼번에 보상 받을 수 있고, 좋은 신랑감도 얻게 될 것이라며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고 하십니다.

http://cafe.daum.net/9glade/GvVP/117445, ID: 다시한번호연지기

아직 이십대인데 뭐 어떡냐.. 엄마 아빠가 기력이 될 때까지 도와 줄테니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런 초조한 생각 갖지 말구 안 되면 담에 하지 뭐... 이런 맘으로 여유롭게 시험쳐라.. 요새 공무원도 사시 행시 못지않은데 사년은 해야 한단다. 니가 원한다면 언제까지 뒷바라지 해줄게....

http://cafe.daum.net/9glade/GvVP/117621, ID: 간절히원하면이루어질까

항상 응원해주시고, 부담 안 주려고 하시는 모습이 더 마음 아프고 죄송스럽다. 중략....

내 문제는, 연락 오는거 확실하게 끊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인간관계. 뭐든 지원해주는 부모님이 있어서 절박함을 느끼지 못한 거. 그리고 난 아직 어리니깐 하는 안일함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이었던거 같다.

http://cafe.daum.net/9glade/32NV/15150 ID: 코코알코알

5년차...첫시험(오빠 조언에도 불구하고 일행을 봤죠),,,영웅심리라 할까? 내가 찍은 답은 다 정답일 것같다는 생각을 했었죠...오빠보다 내가 더 똑똑한 것 같다는 생각...그러나 결과는 참담...오빠는 그동안 고시공부하면서 내공이 100단이었다는 것을 내가 너무 우습게 본거죠. 정말 오만방자했죠...두번째 섬은 교행직에 매료되어 정말 공부에 몰이 올랐었죠...그러나 1점차 낙방

세번째 섬은 사건 사고가 참 많았죠...시험보기 일주일전 오래된 연인관계가 끊이 나죠...제가 공무원이 되는게 더 두렵다던 남친,, 정말 현실적 조건을 생각할 수 밖에 없었던 그때,,그냥 눈물만 났었던 그때정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던 때였어요...패닉상태로 섬을 보는데 국어를 끝내고 손목시계를 보니 거짓말같이 시계가 멈춰있더군요... 나의 고질병인 울렁증이 도발하고,,시계없이 본 섬은 결국 영어 44점.. 2점차 낙

방. 그만 두려했어...그런데 오빠가 부모님을 설득시키고, 저를 책임지고 뒷바라지 해주겠다고 했어...그리고 네번째 섬은 행법이 제 발목을 잡았죠...과락

http://cafe.daum.net/9glade/1q/28875, ID: 백조탈피

노량진은 돈이 들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내년이 마지막이고 시험이 다가올수록 공부를 안 하는 페이스 때문에 노량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경제적 뒷바라지 해줄 정도는 되어서 돈이 아깝긴 하지만, 막상 갈 생각을 하니 또 여러가지 고민이 되더군요. 혼자 밥 먹고 생활하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지금껏 해오던 공부습관을 봐서는 의지가 강한 편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분위기 속에서 효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는지라 외롭고 힘든 생활에 완전 슬럼프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구요...우선 지금은 도시락 싸들고 나와 집 앞 도서관에서 동영상 강의 듣는 중인데, 11월이나 1월쯤 갈까 생각중입니다.

이상의 예를 통해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인 지원이 공시생들의 무이력 기간 장기화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가족들의 경제적, 심리적 도움 없이 공시생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공시를 준비하는 사람도³⁴⁾ 많다. 그러나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지원이 공시생들의 절박함을 감소시켜, 나태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의 지원은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조선시대의 지위 지향적, 집단주의적, 경쟁주의적, 결과주의적 교육문화의 행동패턴이 그대로 재연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공시에 장수생들이 양산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시험에 합격만 하면 모든 상황이 바뀐다는 믿음, 합격이 곧 효도라는 믿음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군 (31살, 남자, 대졸, 미혼, 9급 공시 5년차)

저는 대학교 4학년 때부터(2008년)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올해로 공무원 시험 5년차입니다. 처음에는 공무원이 되려는 생각도 없었지만 부모님의 권유와, 주위 어른들의 권유가 있었고, 그 분들은 9급 시험정도는 고등학생들이나 보는, 대학생이라면 몇 달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 시시한 시험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만만하게 생각하고 접근을 했습니다. ...중략...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합격만 한다면 모든 상황

34) 수험기간 1년을 예상, 적절한 돈을 모아놓고 공부를 시작했더라도 2년, 3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상보다 길어지는 수험생활 속에서 불합격의 쓴 맛도 문제지만 거둬드는 불합격으로 인해 '백수'처럼 집안에서 눈치를 보게 되면서도 손을 벌려야 한다는 것도 고역이다. 특히 나이가 적지 않은 수험생들과 장수생들 중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돈을 벌지 않으면 수험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궁리하는 이들이 많다. 『법률저널』, 2011.8.22. "공부하는 알바'가 되고 싶은 공시생들"

이 반전이 되서 부모님께 당당해 질 수 있고, 부모님께 효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학원비며, 독서실비, 심지어 용돈까지 주신 부모님을 두고 자살하는 것은 불효 중의 불효라고 생각하여 제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합격해서 인생역전을 해 보이고 싶습니다.

서양 (28살, 여자, 대졸, 미혼, 9급 공시 6년차)

5번째 도전에도 또 떨어지자 가족들의 실망도 컸고, 아버지는 합격할 때까지 공부하라고 하셨습니다. 합격만 하면 지금까지의 고생들이 모두 보상 받게 되고, 좋은 신랑감도 얻게 될 것이라며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합격하는 일이 효도가 된다는 점 잘 알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연속해서 안 좋은 소식만 들려오니, 효녀가 되지 못할 것 같아 죄송하기만 합니다.

<http://cafe.daum.net/9glade/9DIIn/874802> ID: 경상민

20대 중반이후 공무원시험공부를 4년간 휘부지 휘부지 얼렁뚱뚱 한적이 있다..결과는 모두 불합격. 집중있게 한 기간은 1년에 고작 1월부터 4,5월 정도. 시험이 끝나면 다시 일상적인 얼렁뚱뚱하며서 다음해를 기다리는 그런 준비를 한것 같다. 이제 벌써 34살 다시 한번 공무원 시험이 다시도전해보려고 한다. 그동안 일반행정하고 교육행정만 공부했는데 적지않은 나이지만 경찰을 해보기로 결정했다. 학창시절에 형법하고 형소법을 본적이 있어서...조금 본적이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에...가장 문제가 되는것이 영어인데..꾸준히 시험장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 끝까지 보겠당. 물론 쉽지않은 선택이자 나의 어쩔수없는 선택을 할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드디어 오늘부터 이미 내 마음속에는 다시 공부해서 지난날의 잘하지 못한 후회함을 보상하겠다. 나의 마지막 다짐속에 내인생의 최대의 반전을 꿈꾸며 난 조용한 시작과 함께 내마음속에 요동치는 공부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을 내 인생에 마지막 에너지로 승화하고자 한다.

<http://cafe.daum.net/9glade/GvVP/42845> ID: 횡~잉

일년 부모에게 기대서 20년 효도하면서 살면되지 하면서 부모에게 돈달라 하면 그렇게 학원도 다니고 동영상도 보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또 떨어지더군요,, 아~ 이제 지친다. 그렇게 책과 씨름하고 세상과 동떨어져 살다보니 어느덧 나이는 이십대 후반이요 친구들은 제 직장 잘 찾아 하나들 여행 갔다가 오고 결혼한 친구도 있고 자기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있더라구요... 그에 비해 전 실패자요 나이먹는 노처녀,,, 집에서 없는 사람이고 친구들에게는 부담되고 안된 친구고,,, 세상에는 버려진 사람이 되어있더군요... ...중략....

그래도 이제는 해야죠.. 다시 직장 들어가 굶신거리며 돈벌기 싫습니다. 이왕 굶신거리며 살거면 공무원 되어서 살고 싶습니다. 거기서 돈도 벌고 출세도하고 결혼도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죽을 만큼 해야죠.. 나를 위해서라도.. 자신감을 찾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난 공무원되면 잘난체 많이 할 것입니다. ㅎㅎ 그날을 위해 열심히, 아주 열심히 잘 공부해야징~~ 파이팅!!입니다

<http://cafe.daum.net/9glade/9DIn/1702234> ID: 슈뢰딩거의고양이

4달 후면 나이 30. 남들 고등학교 공부할때 공부해서 대학교 다니고 남들 공부할때 공부해서 회사 취직했고 회사 2년 다니다가 아니다 싶어서 결혼하려고 모아는 돈으로 노량진 들어와서 학원다니고 결혼하고 싶던 5년사귄 여자친구 공무원준비중에 떠나가고 친구들은 하나 둘씩 자리잡고 청첩장 보내는데...난 여기서 영어가 몇점인지... 국사가 몇점인지...오늘 공부 몇시간 했는지... 이런거 보면서 지나가는 여자나 보고있고...돌아보면 잘못된 점은 없다고 생각했는데...이제 제 모습을 보니 참...비참하네요 그래도 합격하면 모르게 보상받을꺼라고 생각하는데...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상과 같이 3번 이상 공시에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합격만이 인생 반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합격을 통해서만 효도가 된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또한 과거급제가 지상과제였던 선조들의 염원과 닮았다.

그러나 공무원시험에 매달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공무원시험에 연령제한이 있었던 2008년까지는 시험을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되었지만, 2009년부터 연령제한이 폐지되면서, 응시생의 연령 폭이 넓어졌고, 수년간 공시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수년간 공식적인 사회생활 없이, 오직 공시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일반기업에 이력서를 낼 용기도 없어졌고, 공사판에 나가 일하기도 창피해서 공시를 포기할 수 없는 진퇴양란 속에서 공시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박군 (31살, 남자, 대졸, 미혼, 9급 공시 5년차)

드디어 4년 만에 필기시험 합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든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기뻐하시긴 했지만, 9급 공무원 정도에 잔치라도 해야 하나며 서운한 말씀을 하셨지만, 저를 대하시는 태도는 달랐습니다. 89점으로 합격을 했지만, 면접이 남아 있었습니다. 약 3년 6개월 동안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고, 집, 학원, 독서실을 전전하며, 그 누구와도 대화를 하지 못한 저는 면접이 겁이 났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할 친구도, 선배도 없었고, 아버지에게 묻는 것도 우습다는 생각에 인터넷 사이트를 뒤지며 면접 준비를 했지만, 막상 면접 자리에 서자 "왜 공무원이 되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부터 말문이 막히고, 더듬거리는 바람에, 결국은 면접에서 떨어지는 불행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에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챙겨서 충주댐으로 갔습니다. 이왕 죽더라도 아름다운 곳에서 죽어야겠다는 생각에 충주로 갔습니다. 11월 중순이라서 많이 쌀쌀했는데, 저랑 비슷한 형색을 한 남녀 한 쌍, 그리고 저, 또 다른 한 명이 저수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쯤 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수 없이 걸려왔지만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쪽에 있던 사람도 울고 있는 것 같더군요. 이왕에 죽을 거, 죽는 이유라도 누구에게 말하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녀 커플이 저에게 다가와서 "공무원시험 떨어져서 자살 생각하고 계시죠?"라고 하는 게 아닙니까. 깜짝 놀라 어떻게 아셨냐고 말하자, 그 커플의 남

자친구도 몇 년만에 필기에서 합격해 놓고, 면접에서 떨어지자 죽겠다고 여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4년째, 그 커플의 남자는 5년째였습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밤을 새서 이야기하다보니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여자는 저와 남자친구에게 이제 겨우 30살에 세상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했습니다. 필기합격하고, 면접까지 왔으니 이제 1년만 더 하면 합격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그렇게 생각하니 그런 것 같았습니다. 4년이나 공부하고 이대로 포기하기에는 모든 것이 아까웠습니다. 그렇다고 스펙도 없는 제가 일반 회사에 취직될 리도 없고, 그래서 일 년 더 해보기로 그들과 약속하고 기념반지를 만들어 끼었습니다.

권군 (32살, 남자, 대졸, 미혼, 임용고시/7/9급 공시 6년차)

부모님은 제가 임용고시에 합격하지 못하는 것을 보시며 기간제 교사로 일을 한번 해보면서 열정을 살려보는 게 어떻겠냐는 주문을 하셨고, 교육청에 기간제 교사 등록을 해 놓았더니 금세 연락이 와서, 꿈에서도 그리던 학생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떨렸고, 기뻐고, 설렐었습니다. 임용고시에 합격한 몇몇한 선생님은 아니었지만 어려서부터의 꿈을 실현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열정적으로 가르쳤고,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되고자 방과 후에도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참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학생들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저에 대해 "기간제 주체에 열정은 있어가지고"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녀석이 그런 막말을 했는지 확인까지는 못했지만, 저의 열정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주체님은 행동이 되었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허무하고, 어이가 없어서 잠을 설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학생들 앞에 당당히 서고야 말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6개월간의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자, 그 어느 때 보다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주체에"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고, 교권붕괴란 현실을 목격하면서 과연 이 길이 내가 가야하는 길인가라는 회의가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부모님과 애인에게 하자, 임용고시가 어려워서 회피하려는 수작이라며 제 생각에 동조해 주지 않았고, 저는 선생님이 되는 것 보다, 교육청 공무원이 돼서 교사들을 돕는 일이 더 보람된 일이 될 것이라고 설득하여, 7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중략... 국립 대학교에 차석입학을 하고, 학창시절 시험에는 두려움이 없었던 제가 왜 이런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지 기가 막힐 일이었습니다. 교사의 꿈이 소멸되고 저에게 남아 있는 길은 공무원시험 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립대학을 나온 제가 막노동은 할 수 없잖습니까.

임군 (30살, 남자, 대졸, 미혼, 임용고시/7/9급 공시 6년)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제가 연속해서 고배를 마시자 가족들은 걱정을 했고, 다른 길을 찾아보라 했습니다. 저는 임용고시를 계속하기 위해 9급 공무원시험 정도는 단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노랑진으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9급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다 보니, 7급이나 9급이나 합격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과목당 2문제 이상 틀리면 합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뼈까지 떨렸습니다. 계속되는 불합격 소식에 자신감도 사라졌고, 대인관계도 망가져, 입에서는 늘 단내가 날 정도였습니다. 가끔은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 아무 곳이나 취직할까라고

생각도 했지만, 선생님 다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공무원 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저에 대한 기대를 다 접으시고, 공무원만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합격만 하면 모든 상황이 변할 것이라고 어머니가 큰 기대를 걸고 있으십니다. 저번엔 한 친구가 공장에 취직해 보겠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든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http://cafe.daum.net/9glade/GvVP/122809> ID: 꼭꼭

공부, 노는 것 그 어느것도 아니었다 이도저도 아닌 그냥 목표도 없는 삶을 사는 나였다. 어느 순간 공무원이란 것을 알게 됐고, 무작정 시작했다. 역시나 난 의지도 자세도 안되어 있었다. 그냥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되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한 때가 엇그제 같다 공무원을 그냥 아무 생각없이 시작했던 시절에서 이젠 공무원이 아니면 안되는 살 수 없는 시간까지 와 버렸다. 시간을 되돌릴 순 없다, 아니 다시 돌아간다 해도 어찌면 똑같은지도 모른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의 최선, 노력뿐이다. 모든 것을 잃었다 이제 얼마 갖은 것도 없는 내가 그것조차도 다 잃었다 다시 되찾을수 없다는 거 잘 안다. 때로는 현실이 주위의 사람들이 날 억누르고 힘들게 한다해도 이젠 누굴 탓할 수도 없다, 내가 선택한 길이기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걸어온 길이기 그 발자취에 대한 답은 제가 제시해야 한다. 두렵다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서 아니 어찌면 노력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더 두려운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야만 한다. 더 이상 나에게 주어진 길은 없기 때문이다. 두근거리고 기대되는 내일이 아닌 무섭기만한 내일의 연속이라도 달리려다. 사람들이 박수쳐주지 않는다해도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 해도 달리려다. 내가 원한건 어찌면 '합격'이 아닌 '최선'이라는 두 글자일지도 모르니까. 이미 합격의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http://cafe.daum.net/9glade/A6G/11963> ID: 락발라드

나이가 좀 많습니다. 30대 훌쩍 넘었구요. 공무원 준비한지는 6년 정도 됐네요. 준비 기간에 비해 점수도 잘 나오지 않구요..당연한것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겠죠. 올해는 거의 손을 뗐기 때문에 점수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전 사실 지금도 그 미련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내년엔..2가지말이 항상 맴도네요

1. 포기하는 것도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 2. 포기는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2번을 충족시키지 못했기에 포기하는 것도 힘들고...또 이쯤이면 이제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다 라는 생각도 들고.. 헛갈리네요. 그동안 못하는 공부하느라 참 힘들었고.. 스스로 많이 위축도 됐구요..동네에서 아는 사람오면 피해갈 정도로 대인기피도 있었고..”요새 뭐하나?” 라는 말이 듣기 싫어서.. 모임 안나온다고 딱달해서 어찌다 한번 나가면 날 위로하는 세한 분위기가 싫어서..그렇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 주변의 가족밖에 없네요..부모님께 정말 죄송하구요. 그래도 다행인건 형이라도 공부잘하고 좋은 회사 다녀서 한편으로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마저 불효했다면 부모님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오랜 기간 공시에만 매달린 사람들은, 공시를 접고 일반기업에 취업해보려고

생각해 보지만 그들을 받아 줄 기업들이 별로 없음을 인식하게 된다. 게다가 장기간 이 시험에 투자된 물질과 시간을 생각하면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것이다.

한국의 직업 선호도가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성으로 바뀌게 되자,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이 최고의 결혼상대로 그 입지를 굳히고 있으며³⁵⁾, 그 공무원이 되기 위해 많은 청년들이 공시에 수년간을 투자하며, 스스로 무이력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게다가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도저히 중소기업이나, 맘 흘리는 일은 하지 않겠다³⁶⁾는 태도 또한 공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였다. 이는 우리선조들의 숭문적 태도가 지금 이 시대에 고스란히 재연이 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사회는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공부를 계속하는 비경제 인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강하지만, 시험을 통해 인생역전을 꿈꾸는 "준비과정의 학생"으로 봐주는 관대한 태도 또한 강하다. 이것은 한국인의 내면에 숭문적 태도와 입신양명을 통해 효를 실천하려는 한국의 교육관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5. 결론

몇몇 학자들은 청년층 무이력 기간 장기화 문제는 경제상황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풀리게 될 단순한 문제라고 설명하지만, 경제상황이 좋아진다 해도, 사회, 문화적인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사회의 숭문적인 태도와 입신양명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 화제(話題)는 계속해서 반복 될 것이라 판단된다.

한국은 IMF 이후, 기업들의 정리해고가 상시화 되어 직장인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고용불안을 안고 생활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반영하듯, 2009년 7월 한 결혼알선 업체에서 "맞선 상대 직업 '男 공무원', '女 교사'가 제일 인기"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공무원이나, 교사에 대한 호감도

35)결혼정보회사 레드힐스(대표 김태성)는 커플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맞선 상대로 가장 선호된 직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남성은 교사 여성을, 여성은 공무원 남성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웨딩뉴스, 2009.7.17. "맞선 상대 직업 '男 공무원, 女 교사'가 제일 인기"

36)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업체 2천여 개의 인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 인력부족률이 9.6%로 업체당 2.65명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평화방송』, 2013.9.8 "중소제조업 만성 인력난 심각"

가 급상승하였고, 실제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수년간을 투자하며 이 시험에 매달려 있으며, 그들의 부모들도 무조건 공무원이 돼서 안정된 신분을 확보하길 바란다. 이렇게 수년간 아무런 사회경력 없이, 공시에 매달려 있는 공시생들의 모습은 우리선조들이 과거시험에 전 인생을 걸고 공부하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았고, 이 두 시험은 3가지의 공통점이 있었다.

첫째, 당시의 과거에 응시하던 응시자 규모가 현재와 비슷하다는 점.

둘째, 학력, 신분에 상관없는 공정한 시험이라는 점.

셋째, 합격만 하면 신분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리고 조사대상자들이 공시에 장기간 매달릴 수 있었던 4가지 공통점으로는,

첫째,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둘째, 합격만 하면 모든 상황이 바뀌고, 오직 합격만이 효도하는 길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셋째, 이 시험에 투자된 시간, 노력, 경비를 생각하면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넷째, 공식적인 사회경력이 없기 때문에 일반기업의 도전은 포기하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와같이 이들은 전진도, 후퇴도 하지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있었다. 특히 이들이 공시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합격만 하면 신분을 확실하게 보장 받을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 그리고 문(文)으로 입신하려는 의지가 기저에 깔려 있었다.

한국의 청년층 무이력 기간 장기화 현상은 결코 갑자기 생겨난 현대의 사회문제가 아니었다. 즉 수세기 전부터 우리의 선조들이 과거시험에 전 인생을 바친 것처럼 그 현상이 지금도 재연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무(武)보다는 문(文)을 중시하던 우리 선조들의 숭문적 태도와 부모를 하늘처럼 섬기는 효 사상이 수세기가 지난 지금도 우리의 교육과 도덕의 기준점으로 작용하고 있듯이, 과거(공부)를 통해 입신양명과 효를 이루려는 인식도 없어지지 않고 한국인의 의식 속에 그대로 침전되어 있어, 조금의 충격에도 다시 부유하여 우리사회의 행동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학생의 신분을 유지하며 무이력 기간을 연장해도 이들을 관대하게 봐주는 이유는 이러한 인식들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參考文獻】

한국자료

- 『경국대전(經國大典)』, 권3, 예전(禮典) 제과(諸科)
강만길(1984), 『한국현대사』, 서울: 창작과 비평사.
강무섭 외(1986), 『입시위주 교육의 실상과 대책(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강창동(1996), 「한국 교육열의 사회화 특성에 관한 연구」, 교육문제연구 8권1호.
----- (2008), "한국의 편집증적 교육열과 신분욕망에 대한 사회적 고찰", 한국교육학연구 제14권 제2호.
고복순 외(1987), 『어머니의 내신성적』, 삼중당.
국사편찬위원회(1994), 한국사 23: 조선초기의 정치구조, 탐구당문화사.
김경근(2006), "한국사회에서의 상급학교 진학 선택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제16권 제4호.
김영화 외(1993), 『한국인의 교육열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1994), 『한국인의 교육의식 조사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재훈(2009), "순조대 문과의 운영과 응시자들의 동향", 명지대학교 석사논문.
나성숙(2005), 「한국 청년실업의 실태와 대응방안」, 서울시립대 석사논문.
서근원(2008), "교육열의 의미에 관한 한 해석 -사회적 상황의 변화와 관련해서", 교육인류학연구, 제11권 제1호.
이동원 외(1992), 「대학입시와 가족」, 한국사회학회, 가족 문화연구회.
이충우(1980), 『경성제국대학』, 다락원.
정석중(1992), 『조선후기 사회변동연구』, 일조각.
정우탁(1997), "교육과 사회적 이동의 정치적 의미", 교육정치학연구 제4집 제1호
정현진(2009), "조선시대 과거제도와 현대 공개채용시험 비교" 건국대학 석사논문.
조혜인(1998), 「한국교육 현상 속의 왜곡된 성리학적 유산: 보상과 의무의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과학연구 제7집.
조혜정(1995),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 읽기와 삶 읽기③』,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차장섭(1994), "조선후기 문과급제자의 성분", 대구사학 47.
허희영(2010), "공무원 지원자들의 직업선택 동기에 관한 연구: 7, 9급 지원자들을 중심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논문.

일본자료

- 須田敏子(2005), 『HRM マスターコース人事スペシャリスト養成講座』, 慶應義塾大學出版會.
小杉礼子(2003), 『フリーターという生き方』, 勁草書房.
山田昌弘(2004), 『希望格差社會』, 筑摩書房.
小杉礼子(2003), 『フリーターという生き方』 勁草書房.

신문자료

오마이뉴스. 2003.8.28. "4-50대 실업, 남의 일이 아닙니다"

경향신문. 2010.11.07. "올해 당신은 행복했나요"

서울신문. 2010.9.29. "공무원시험 늦깎이 돌풍"

서울신문. 2010.11.17. "7급 국가직 합격자 평균 30.5세"

MBC 이코노미뉴스, 2013.7.18. "취업준비생 3명중 1명이 공무원시험"

법률저널, 2011.8.22. "공부하는 알바'가 되고 싶은 공시생들"

웨딩뉴스, 2009.7.17. "맞선 상대 직업 '男 공무원, 女 교사'가 제일인기"

평화방송, 2013.9.8 "중소제조업 만성 인력난 심각"

인터넷 자료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print.php?mgz_part=shin&n=200305270500016,](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print.php?mgz_part=shin&n=200305270500016)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477

<http://cafe.daum.net/9glade>

http://www.pbc.co.kr/CMS/news/view_body.php?cid=472700&path=201309

要 旨

韓日兩國は低出産問題をはじめ、國民年金制度の崩壊危機、超高齡社會の到來、青年層の失業問題等々、似通った社會問題で悩まされている。本研究者は以上の問題の根源に他ではなく青年層の無履歷期間の長期化が密接に絡んでいると考えている。兩國の青年の失業問題について‘經濟さえ回復できれば自然に解決できる’簡単な問題だと單純な經濟論理で説明する研究者もいるが、經濟好轉が兩國青年層の無履歷期間の長期化の根源的な解決策になるとは考え難い。なぜなら、この問題には兩國の文化的な要因が絡まれているからである。

今回は韓國の青年たちを取り扱った。韓國では青年たちが‘就職準備生’という學生の身分を借りて周りに無履歷期間を隠していた。さらに周りの人々はなぜか彼らの事を默認する傾向があった。なぜ韓國の人たちは彼らに寛大なのか？

韓國の青年層が公務員試験に拘り、無履歷期間を延ばしている状況を寛大に振舞っている理由は3つの社會文化的な認識が働いていたからであった。まず、家族の積極的な支援があったからであり、第二に、合格さえすれば、すべての状況が逆轉出来るという信念と合格だけが唯一の親孝行だと硬く信じていたからこの試験に拘るのであった。第三に、この試験にかけられた時間、努力、経費を考えると諦めることができず、また正式な社會經驗もないため、一般企業での挑戦も難しい。また大學を出て労働で生計を立てるなど青年自身も親も望んでいないため彼らは前進も、後退もできなず公務員試験にまた戻れるのであった。

これは朝鮮時代の人々が科擧(崇文的態度)を通して出世し親孝行を實行しようとした姿と全く同じ傾向であり、公務員試験は科擧の再現なのである。公務員試験を通して確實な身分を得、また親の顔も立てようとする就業準備生(公務員試験準備生)の努力を韓國人は寛大な目で見るのである。

キーワード： 공무원시험, 공시생, 과거제, 승문적 태도, 무이력 기간 장기화

투 고 : 2013. 11. 30
1차 심사 : 2013. 12. 14
2차 심사 : 2014. 1. 4